

- 국립방재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안녕하십니까!

깊어지는 가을에 다가오는 10월25일은 국립방재연구원이 출범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화문 침수와 우면산 산사태의 후속대책으로 행정안전부 직속 연구원으로 승격된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 국제방재협력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본 행사는 첫째 날에는 행안부 장관님의 환영사 및 해외 유명 인사들의 기조연설, 세미나 2~3일째에는 다양한 분과 세미나(백두산 화산대응 국제세미나, 한국·대만·일본 국립연구기관 방재워크숍, 태풍위원회 훈련분과 순회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를 모시고 국제협력력을 위한 심층적인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방재협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개최

- 주 제 : 미래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과학방재의 도전
- 기 간 : 2012.10.30(화)~11.1(목), 3일간
- 주 최 :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 주 관 : 국립방재연구원
- 장 소 : 중앙정부청사 별관(외교부청사) 국제회의장
코리어나 호텔, 롯데시티호텔, 국립방재연구원 회의실
- 세미나 구성

제1일 (10.30)	종합 세미나	『미래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과학방재의 도전』		
제2일 (10.31)	분과별 세미나 및 현장답사	[국가연구사업의 협력] 백두산 화산대응 국제세미나	[국제연구기관과의 협력] 한·대·일 국립연구기관 방재워크숍	[국제기구와의 협력] WMO/ESCAP 태풍위원회 훈련분과회의
제3일 (11.1)			(오후) 현장답사	태풍위원회 훈련분과회의

회 원 동 정

■ 서울시, 재난 현장에서 '심리안정 지원 상담' 바로 신청 가능

- 재난 피해 시민들이 심리안정 지원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소방서 등 현장에서 직접 사건사고를 수습하는 직원들이 재난피해 심리상담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계 시스템을 개선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는 서울시 재난심리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고 상담전문가는 상담자와 상담일정 및 장소를 정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재난 피해 시민의 시간에 맞춰 모든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공무원 경북 김천수해복구 봉사활동 나서

- 경기도청 공무원 100여 명은 9월 21일 제16호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김천시 양금동 일대 5곳을 찾아 토사제거, 주변 부유물 잔해 정리, 주택 내 오물제거, 버섯농장 보수 등 침수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 인천시, 도시방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인천소방안전본부는 9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3일간 인천 송도에 위치한 'UN ISDR 동북아시아사무소 및 UN 방재연수원' 주관으로 「도시방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UN ISDR 동북아시아사무소 : 동북아국가들의 재해경감활동 조정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UN ISDR 산하 지역사무소
- UN 방재연수원 : UN 최초의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재분야 교육·훈련 기관
- 이번 워크숍에는 UN ISDR본부 Helena Molin-Valdes 국장 등 국제기구 및 국가별 도시대표, 방재 교육·연구기관 등 도시방재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방정부의 도시방재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강원도, "생태효율적 도시인프라" 국제훈련과정 실시

-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국제도시훈련센터(김귀곤 원장)는 UN-HABITAT(유엔 인간정주프로그램) 및 UNESCAP(아시아태평양양경제사회위원회) 공동으로 오는 10월5일부터 12일까지 7박8일간 아태지역 10개 국가 20명의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의원, 교수 등이 참가하는 "생태효율적 도시인프라 국제훈련 과정"을 실시한다.
-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국제도시훈련센터(IUTC: International Urban Training Center)
 - 2007년 강원도 홍천에 설립된 '강원도-UN-HABITAT' 협력 교육훈련 기관
 - 목적 :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실시

■ 충북도, 태풍피해 복구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충청북도는 제14호 태풍「덴빈」, 제15호 태풍「볼라벤」, 제16호「산바」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 원 동 정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 태풍 피해 복구 7만8000명 구슬 땀

-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덴빈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활동에 연인원 7만8080명이 참여, 피해복구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 도 관계자는 “이번 피해는 공공시설보다 사유재산에 피해가 커 단 한 사람의 손길도 아쉬웠다”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먼 지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의 구슬땀으로 복구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대전시, 구제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

- 대전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5개 자치구에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질병발생 및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 전염병 예찰활동, 축사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독,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게 된다.

■ 전북도, 금년 8~9월 호우·태풍 피해복구, 우기이전에 마무리 한다

- 특별교부세 277억원 확보 복구탄력 / 도본청 124억, 시군153억

- 전라북도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8.12~13 집중호우와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277억원을 확보 하였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도는 도비 부담액 234억중 시군의 풍수해 피해 원활한 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165억(집중호우 45억, 태풍 2건 120억)을 긴급 지원한바 있으며, 나머지 69억원은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여 내년 우기전 항구복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 전남도,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 숨통 트여

-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942억 추가 이어 특별교부세 822억 확보

- 전라남도도가 태풍 ‘덴빈’과 ‘볼라벤’의 피해 복구로 열악한 도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건의해 822억 원을 확보, 신속한 복구활동에 탄력이 붙고 열악한 도 재정에도 숨통이 트였다.
- 이에 따라 전남도도는 추석 전에 사유시설에 대한 조기 복구를 위해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중앙지원금 1천822억 원에 도 예비비 313억 원을 보태 2천457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 광주시, ‘2012 을지연습 종합강평보고회’ 개최

- 연습 실시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

- 광주광역시시는 10월4일 시청에서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2012 을지연습 실시결

회 원 동 정

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강평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보고회에서 올해 실시한 을지연습이 국지도발시 통합방위절차 숙달 등 위기대응역량 배양, 전시종합상황실 체계확립, 테러 및 재난대처능력 숙달, 다양한 시민참여행사 개최 안보의식 고취 등 비상대비태세를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경북도, 농업분야 태풍피해 응급 복구 마무리 단계

- 인력지원 5만2천여명, 과수낙과 전량 수매 등 민관군이 하나되어 추진 -

- 경상북도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도내 22개 시군에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행정력을 동원, 민관군이 합심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응급복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 도에서는 이번 태풍피해농가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손지원, 낙과수매, 낙과사과 팔아주기, 침수농기계수리 등 복구대책을 적극 추진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에 힘을 보탤다.

■ 대구시, 이재민 재해구호로 자연재난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 -

- 대구시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해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활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된 "대구지역 구호센터"를 조직하고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를 재해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대구시 이경배 재난관리과장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재호구호 활동을 위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759백만 원의 재해구호 기금을 확보하고 태풍 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비 및 재해구호 물자 구입비에 267백만 원을 지출해 현재 13,492백만 원의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통합 수운영 시스템' 구축

- '상수도 선진화 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까지 163억 원 투입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선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고 울산 수돗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상수도 선진화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163억 원을 투입, '통합 수운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 통합 수운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며,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취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량, 수질, 수압 등 모든 정보를 수리적 프로그램으로 관압의 변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관리된다.

회 원 동 정

■ 경남도, 경남소방본부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전국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 '스마트 신고시스템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전국 2위 차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신열우)는 9월 27일(목)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제24회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전국대회에서 '스마트 신고시스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2위를 차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부산시, 낙동강 생태공원 새 생명 얻어 시민의 품으로..

- 9.27,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낙동강생태공원 응급복구 완료

-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본부장 홍용성)는 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한 제16호 태풍 산바(SANBA)의 영향으로 강풍 및 침수피해를 입은 낙동강생태공원 5개소(삼락, 화명, 맥도, 대저, 을숙도)의 응급복구 작업을 9월 27일부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태풍으로 인하여 생태공원 일대는 강풍 및 침수 등으로 시설물 파손, 수목 도복 등 추정 금액 3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으나 이번 9일 동안 복구 작업에 인력 4,487명 및 장비 225대를 동원하여 공원 내 진입로, 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였다

■ 제주도, 세계로 나가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제2기 안전도시 사업 이괄 안전도시위원 15명 위촉장 수여

- WHO 제주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시점에 앞서 제주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제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가 9월27일 11시 도청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한편, 제주는 2007. 7. 1일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되었으며 오는 10월 그 간 안전도시 추진사업 및 성과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재공인식을 갖게 된다.

인 사 동 정

■ 소방방재청

<부이사관 승진>

- ▶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추진단장 김인한

<서기관 전보>

- | | |
|------------------------|----------------|
| ▶ 재난상황실장 홍경우 | ▶ 기획재정담당관 김장국 |
| ▶ 재난대비과장 김종수 | ▶ 방재대책과장 박종윤 |
| ▶ 복구지원과장 서상덕 | ▶ 재해영향분석과장 최구봉 |
| ▶ UN ISDR 동북아지역사무소 정근영 | |